

“시각장애인과 바꾼 모바일앱… 장벽없는 모두의 투자로”

인터뷰 | 토스증권 **곽수정·황세원·김원호**

‘접근성 해커톤 프로젝트’ 진행 시각장애인 이용자와 과정 살피고 서비스 전반 접근성 개선 작업 “모든 조직이 접근성 고민 목표”

“투자의 힘을 모두에게.” 토스증권의 캐치프레이즈인 이 문구는 그동안 투자 문턱을 낮추고 더 많은 사람을 시장으로 끌어들이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최근 토스증권이 진행한 시각장애인 접근성 개선 프로젝트는 ‘모두’의 의미를 한층 넓혔다. 나이나 투자 경험을 넘어 장애 유무와 관계없이 누구나 같은 정보에 접근하고 같은 투자 경험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된 시도다.

토스증권은 올해 3월부터 시각장애인 투자자와 함께 서비스 접근성을 점검하는 해커톤을 진행하고 있다. 개발자와 디자이너, QA 담당자가 한자리에 모여 실제 이용자의 서비스 사용 과정을 관찰하고, 발견한 문제를 개선하는 방식이다. 처음에는 시각장애인 이용자의 불편을 줄이기 위한 프로젝트였지만 현장을 경험한 참여자들은 접근성이 특정 이용자를 위한 기능이 아니라 서비스 전반의 설계 문제로

는 사실을 깨닫게 됐다. ◆“어떻게 계좌를 만들었지?”…직접 보고 알게 된 투자의 장벽 프로젝트 참여자들이 가장 먼저 놀란 것은 시각장애인 투자자들이 이미 활발하게 투자 활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곽수정 QA 리드는 “처음에는 투자 정보를 확인하는 수준일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상당수 이용자가 계좌를 보유하고 투자까지 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특히 계좌 개설 과정은 예상보다 높은 장벽이었다. 신분증 촬영과 본인 인증은 비장애인에겐 익숙한 절차지만 시각장애인에게는 쉽지 않은 과정이다. 광 리드는 “계좌 개설이 가장 어려웠을 것”이라며 “어떻게 계좌를 만들었을까 싶을 정도였다”고 말했다.

황세원 프로덕트 디자이너는 투자 판단의 핵심인 호기장에서 또 다른 문제를 발견했다. 비장애인 투자자는 매수·매도가격과 잔량 정보를 한눈에 확인하지만 시각장애인 이용자에게는 이 정보가 충분히 전달되지 않았다. 황 디자이너는 “같은 화면을 보고 있었지만 한쪽은 의사결정을 할 수 있었고 다른 한쪽은 그러지 못했다”며 “투자에 가장 중요한 정보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충격이었다”고



(왼쪽부터)김원호 프론트엔드 개발자, 곽수정 QA 리드, 황세원 프로젝트 디자이너 /토스증권

말했다. 커뮤니티 기능에서도 문제는 발견됐다. 게시글 제목은 읽을 수 있었지만 해당 글이 선택 가능한 메뉴인지 인지하지 못해 상세 화면이나 댓글로 이동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매매 화면에서는 가격과 수량을 입력하기 위해 키패드가 열려도 현재 입력 가능한 상태인지 알기 어려운 문제도 확인됐다. ◆시각장애인에서 시작해 ‘모두를 위한 투자’로 이번 프로젝트는 단순히 문제를 발견하

는데 그치지 않았다. 토스증권은 체결강도와 매수·매도세를 요약해 전달하는 기능을 도입했고, 급변하는 호가 정보를 사용자가 직접 멈추거나 다시 읽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매매 화면에서는 가격과 수량 입력 시 키패드로 자동 이동하도록 수정했으며 커뮤니티와 계좌개설 과정 등 서비스 전반에 대한 개선 작업도 이어가고 있다. 참여자들에게 더 큰 변화는 접근성을 바라보는 관점이었다. 황 디자이너는 “그동안은 화면이 음성으로 어떻게 읽힐지

가 깊게 생각하지 못했다”며 “이번 경험을 통해 설계 단계에서부터 접근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깨달았다”고 말했다. 김원호 프론트엔드 개발자는 “증권 서비스는 실시간 정보가 핵심”이라며 “단순히 읽어주는 것을 넘어 어떤 정보를 전달할지 고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TF 참여자들은 이번 프로젝트를 사회 공헌 활동이 아닌 본업의 깊이를 더하는 활동으로 바라본다. 궁극적인 목표도 접근성 TF가 필요 없는 조직을 만드는 것이다. 모든 서비스 조직이 설계 단계부터 자연스럽게 접근성을 고려하는 문화가 정착돼야 한다는 의미다.

광 리드는 “접근성을 위한 TF가 사라지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모습”이라며 “모든 조직이 처음부터 접근성을 고려하는 문화가 자리 잡길 바란다”고 말했다. 토스증권의 접근성 프로젝트는 시각장애인 투자자에서 출발했다. 하지만 참여자들이 바라보는 최종 목적지는 더 넓다. 고령층과 금융 초보자, 나이가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투자 서비스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개선으로 시작된 실험은 결국 ‘투자의 힘을 모두에게’라는 문장을 현실로 만드는 과정이 되고 있다.

/허정윤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metro**

스페이스X 급락… 서학개미 ‘거품 경고음’

해외주식 Click

16% 넘게 폭락, 제2페이스북 우려 과도한 AI 인프라 투자 경계론 커져

“스페이스X 거품이 벌써 꺼지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다. 회사채 발행 소식에 하루 만에 16% 넘게 폭락할 줄은 몰랐다”

미국 우주 기업 스페이스X와 인공지능(AI)기업에 탑승한 서학개미들의 얼굴이 잿빛으로 변하고 있다. 스페이스X와 인공지능(AI)기업들이 추진하는 자금 조달과 인프라투자에 의구심이 커지면서 주가가 흔들리고 있어서다. 시장에서는 특히 스페이스X를 두고 상장 직전 연도의 막대한 적자와 함께 실제 버는 돈에 비해 기업 가치가 지나치게 부풀려졌다는 고평가 논란이 일면서 과거 페이스북 상장 악몽이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전문가들은 상장 초기에 주가 변동성이 예상되는 만큼 맹목적인 추격 매수보다는 조정 시 분할 매수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23일 한국예탁결제원 증권정보포털에 따르면 국내 개인 투자자는 지난 12일 스페이스X 상장 이후부터 지난 22일까지 19억4960만달러(약 3조원)를 순매수했다.

서학개미들 시장 참여자들이 스페이스X에 자금을 투자하는 배경은 성장성도 있지만, 패시브 자금(지수 추종 자금)의 대규모 유입에 주목하고 있다.

스페이스X는 상장 후 15거래일 뒤인 다음 달 6일 나스닥100 지수에 편입될 예정이다. 이를 포함해 각종 지수 편입으로 총 162억달러 규모의 패시브 자금이 밀려들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투자업계한 관계자는 “단기적으로 스페이스X의 주요



ChatGPT로 생성한 이미지.

지수 편입에 따른 패시브 자금 유입이 주목된다”면서도 “다만 스페이스X 상장 직후 주가 변동성 확대가 불가피한 만큼, 가격 조정을 활용해 분할 매수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스페이스X의 화려한 데뷔 이면에는 지난 2012년 페이스북(현 메타) 상장 직후 주가가 반 토막 났던 악몽이 재현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오고 있다. 스페이스X는 지난해 데이터센터 건설 등 AI 부문의 막대한 자본 지출로 49억3000만달러의 대규모 순손실을 낸 적자 기업이다. 영화 ‘빅쇼트’의 실제 모델로 유명한 헤지펀드 매니저 마이클 버리는 최근 고객들에게 보낸 소식지에서 “스페이스X는 연 매출이 200억 달러도 되지 않는 작은 우주기업으로, 틈새 통신 기업이며, 골치 아픈 소셜미디어 기업이자, ‘코어워브’의 마이너 버전에 불과하다”고 했다. 버리는 특히 워런 버핏이 이끈 버크셔 해서웨이와 비교했을 때 스페이스X 시가총액은 비상식적인 수준에 도달했다고 비판했다.

실제 주가도 흔들리고 있다. 스페이스X는 지난 12일 공모가 135달러로 나스닥

에 상장한 이후 첫 거래일 19.22% 급등했다. 이어 15일 19.6%, 16일 4.83% 오르며 강세를 이어갔다. 하지만 이후 변동성이 확대됐다. 17일 4.95%, 18일 3.56% 하락한 데 이어 22일에는 16.43% 급락하며 154.60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서학개미의 고민은 AI관련 기업에도 있다. 이달들어 서학개미 순매수 상위에 마이크론테크놀로지(8억6580만달러), 마블테크놀로지(5억3554만달러), 알파벳(2억4584만달러), 인텔(1억5243만달러) 등 반도체 및 AI기업들이 이름을 올렸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메타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MS) 등 주요 하이퍼스케일러(초대형 데이터센터 운영기업)들의 과도한 인프라 투자 비용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날 “현재의 AI 투자 열풍이 과거 닷컴버블과 유사한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당시에도 기업들은 공격적으로 자금을 조달해 투자에 나섰지만 결국 상당수가 수익성을 입증하지 못하며 투자자들에게 큰 손실을 안겼다”고 지적했다. /허정윤 기자

박현주식 전략에 미래에셋 고액자산가 급증

30억 이상 고객 9500명 넘어서 성장주 중심 투자, 자산 증식 기여

박현주 GSO(글로벌전략가·사진)가 강조한 미래 성장산업 중심의 글로벌 투자 전략이 고액자산가 시장에서도 성과를 내고 있다. 국내외 AI·반도체 등 성장 산업에 대한 투자 수요가 확대되는 가운데 미래에셋증권의 30억원 이상 고액자산가 고객 수가 1년 만에 3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미래에셋증권에 따르면 30억원 이상 금융자산을 보유한 고객 수는 지난 5월 기준 9500명을 넘어섰다. 지난해 5월 3000명대 수준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1년 만에 3배 이상 증가한 규모다. 전월 대비 증가율도 26%를 기록했다.

100억원 이상 금융자산을 보유한 초고액자산가 고객 수도 같은 기간 두 배 이상 늘었다. 단순한 증시 상승에 따른 평가이의 증가를 넘어 글로벌 투자 기회와 종합 자산관리 서비스를 찾는 고객 유입이 이어진 결과로 풀이된다.

초고액자산가 고객들의 투자 포트폴리오에서는 국내외 성장주 선호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국내 주식 보유 상위 종목은 현대자동차, SK하이닉스, 삼성전자, 한미반도체, 산일전기 순으로 집계됐다. 해외 주식은 브로드컴, 엔비디아,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테슬라 등이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AI 반도체와 데이터센터, 모빌리티 등 구조적 성장 산업을 중심으로 투자 비중을 확대하며 미래 성장 분야에 대한 투자 수요가 집중된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주요 보유 종목의 성과도 두드러졌다. 미래에셋증권이 2024년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수익률을 분석한 결과 SK



하이닉스는 1241.6%,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1058%, 삼성전자는 495.9%, 산일전기는 260.1%의 수익률을 기록했다.

업계에서는 글로벌 AI 투자 확대와 반도체 업황 개선이 맞물리면서 성장주 중심의 투자 전략이 고액자산가들의 자산 증식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박 GSO가 오랜 기간 강조해온 글로벌 자산배분과 미래 혁신산업 투자 철학이 고객들의 투자 성향에도 반영된 것으로 평가된다.

고액자산가 고객 기반 확대의 배경으로는 종합 자산관리 서비스 수요 증가도 꼽힌다.

최근 고액자산가 시장에서는 단순 투자 상품 판매를 넘어 세무와 부동산, 상속·증여, 기업승계, 자녀 교육 등을 포괄하는 맞춤형 자산관리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다.

미래에셋증권은 VIP 자산관리 브랜드 ‘세이지(Sage)’를 통해 기업 경영자와 전문직, 자산가 고객을 대상으로 다양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젊은 기업가와 차세대 리더를 위한 ‘세이지 비욘드’, 대학생 자녀를 대상으로 한 ‘세이지 주니어’, 가문 단위 자산관리를 지원하는 패밀리오피스 서비스 등이 대표적이다.

미래에셋증권 관계자는 “고객 자산가 고객이 1년 만에 3배 증가한 것은 미래에셋증권의 투자철학과 관리 역량이 인정받았다는 의미”라며 “고객의 성공이 기업의 성과라는 고객동맹 철학을 바탕으로 차별화된 자산관리 서비스를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허정윤 기자